

“조금 더 이야기해볼래요?”

[외관]



<공식석상>

<사석>

약한 곱슬기가 느껴지는 머리카락은 헤이즐넛색에 가까운 밝은 갈색으로 머리가 잘게 빠져 복슬거리는 느낌을 준다. 사적인 자리에선 복슬거리는 느낌 그대로 내버려두는 편이지만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다녀야 할 땐 깔끔하게 펴서 반정도 넘기고 다닌다.

단정하게 다듬은 눈썹 아래로는 둥글고 시원하게 트인 아몬드형 눈이 자리잡았다. 끝이 조금 내려가게 빠진 눈매를 따라 쌍꺼풀이 얇게 젖으며 속눈썹이 길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제법 진지하게 표정을 관리하는데도 은근하게 사근사근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그 눈매의 덕이 컸다. 단정한 눈을 넉넉하게 채우는 눈동자는 우유를 잔뜩 탄 카페라떼의 빛과 같았다.

반듯한 이마에서부터 이어지는 코는 제법 그 콧대가 높았다. 실로시움의 사람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높고 시원하게 뻗었다가 맵시있게 떨어지는 라인 덕에 물렁물렁하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지을 때마저도 의외로 인상이 또렷해보였다. 입술은 색이 열지만 제법 도톰하고 그에 더해 왼쪽 입술 아래로 별마냥 콕 찍힌 점 덕에 어느 부분보다도 입매가 인상깊게 남는 사람이었다. 눈코입을 하나씩 똑똑 떼어놓고 보면 너도 나도 인상이 또렷하니 과하게 화려한가 싶으면서도 그것이 한 갈래인양 착 붙는 얼굴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그는 공석과 사석에서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공석에서는 일부러 고급스러운 것만을 걸친 탓인지, 일부러 제 나이보다도 더 어른스러워 보이게끔 한 스타일링의 덕인지,

그도 아니라면 찢러도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태도 때문이었는지. 수장직을 맡기에는 어린 나이니 겉모습만이라도 그럴싸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라지만

과하게 이미지 포장이 잘 된 탓에 사석에서 그를 마주쳐도 공석에서의 모습과 연결짓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공석에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몸을 관리하고있다. 뼈대가 그리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적당히 근육을 붙여 일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 격이 높은 수트를 무리없이 소화해내기 위함이라는데, 시계줄을 따라 빙 둘러 음각으로 뱀 모양이 새겨진 손목 시계 또한 질 좋은 수트에 놀리는 법 없이 제법 고풍스러운 멋을 내며 어우러졌다.

출처: https://picrew.me/image_maker/32223

[이름]

인호연

[키/몸무게]

182cm / 72kg

[나이]

32세

[진영]

행정부

[성격]

영리하고 교활한 |

그는 본디 영리한 사람이었다. 시야가 넓어 일처리가 빠르고 깔끔했으며 그 덕에 쉽게윗사람들의 눈에 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그저 조직원 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일부러 교활한 꾀를 써야할만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 탓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귀찮아서 그랬던 것인지. 수장이 된 후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부러 행동파의 심기를긋기 위해 교활한 흥계를 꾸며대곤 한다.

자유분방한 |

공과 사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하며 사적인 자리에선 꽤나 자유분방한 성품이다. 장난기가 다분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선이라면 즉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아 언행이 가볍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그리 자존심을 세우는 편도 아닌지 상대방이 듣기 좋을 말을 골라해대기도 하며 약간의 주접 기질도 있어 입안의 혀처럼 굴 때가 많다.

다정한 |

마피아가 다정해봐야 얼마나 다정할까 싶지만 의외로 주기로 결심한 애정에는 그리 박하게 구는 편이 아니었다. 만물에게 애정을 쏟는 성격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주고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거리낄 것 없이 애정을 부어대곤 했다. 그 성향은 제가 속한 조직까지 이어져 제 아랫사람들을 아끼고 최대한 배려해주려 하는 편이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 여론은 원체 성격이 교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본인은 무엇이든 받아줄 것처럼 굴다가도 아니다 싶은 선은 딱 그어 잘라버리니 그런 소문이 돌아도 이해한다며 웃어넘긴다.

의심 많은 |

샐샐 웃으며 세상 가볍게 아무런 생각없이 사는 듯해 보여도 의외로 무엇이든 곧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 단순한 호의를 받을 때마저도 의문을 품으며 친분이 없는 관계라면 의심하거나 거절하는 일도 허다하다. 관계나 감정적인 면에서 통제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이유로 호의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

[성향]

B

[기타]

- 실로시움으로 유학을 와 약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바로 조직에 들어와 마약 유통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깔끔하고 빠른 일처리 덕에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전 수장의 눈에 들 수 있었다. 수장이 죽기 전 이중 장부를 넘겨주며 다음 대 수장으로 지목해 대외적으로는 큰 잡음 없이 다음 수장이 되었다. 전임 수장을 짝사랑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본인은 이렇다 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 종종 사복차림으로 중립구역에 방문한다. 정보 수집을 겸한 취미.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태연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낯짝이 두꺼워 평범한 주민인 체 하거나 제 진영에 불만이 많은 말단 직원인 체 하고 다닐 때가 많다. 수장직을 맡기엔 어린

나이라는 점과 공식 석상과 다르게 가볍기 그지없는 태도에 그럭저럭 의심없이 넘어간다고.

- 마약 유통하던 시절의 버릇이 남아있어 지금도 약을 들여올 때마다 직접 확인하고 조금씩 챙겨다닌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호신용으로 총을 한 자루 챙겨 다니기는 하지만 총보다는 약을 쓰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 일반 조직원이던 시절에는 유통을 위해 계약을 따는 과정에서 자주 이용하기도 했다고.
- 등허리 아래쪽에 사과와 뱀이 얹힌 문신이 새겨져있다. 조직과는 무관하게 새겼던 것으로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듯하다.
- 꾸준히 몸관리를 하고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술과 담배, 약에도 손을 대고있다.

[선호/기피]

오너: 기피 외 전부 / 도가 지나친 시비, 합의 없는 상해, 유아퇴행, 브라운 스캇, 절단
캐릭터: 기승위, 약물, 컴컨트롤 / 플레이 외의 폭력, 비위생적 플레이

[후관]

[서 주호]

일반 조직원이던 시절 스카웃해온 병아리.

마약 유통을 위해 외근을 나갈 때마다 종종 멀리서 보곤 했다. 워낙 키가 크고 덩치도 괜찮아 첫 인상은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대박이겠다' 였다고.

그저 그렇게 오며가며 몇 번 본 사이로 끝나나 싶을 무렵, 외근을 나갔다 화를 당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주호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성격에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 그 후로 주호를 종종 마주칠 때마다 말이라도 한 번 더 걸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게 됐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한창 조직 내의 갈등이 심화되던 즈음 크게 다친 주호를 발견해 데려오게 됐다. 치료와 회복을 돕다보니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행정부로 스카웃 제의를 했다.

[시로 이치고]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길을 벗어나가면 진심어린 조언을 해준다는 점이 좋아 부대장으로 발탁해 곁에 두었다. 어두운 항로를 비춰주는 등대와도 같은 사람. 공식에서는 절도있는 태도로 각듯이 대하지만 사석에서는

금세 풀어져 응석을 부려댄다. 말단 조직원이던 시절부터 같은 부서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내심 정말로 할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인지 유달리 그를 잘 따른다.

[디워]

맞지않는 옷을 입은 듯 숨통이 막힐 때마다 중립구역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 조직원 신분을 숨기고 중립구역에 놀러다니던 시절부터 만난 친구이다. 아마도 그는 저를 마약 딜러로 알고있지 않을까. 대립 양상이 장기화되고 그가 은연중에 흘리는 행동부의 소식을 들으며 언제 한 번 각을 잡고 정보를 털어봐야하나 고민중이라고. 정보를 털어 관계를 끝내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은 같이 시덥잖은 수다나 떨고 술을 마시는 게 즐거워 쉽게 결심이 서지 않는 듯 하다.

[허우로]

함께 지낸 기간이 길어 남들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관계. 실로시움으로 유학을 왔을 때 친구의 권유로 들어갔던 농구 동아리에서 그를 만났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 잘 맞아 금세 친해졌다. 졸업 이후의 생활을 고민할 즈음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그의 권유로 리화에 입단했다. 조직에 적응할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시간이 오래 흘러 수장이 된 지금까지도 편하게 말을 하고 장난치는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서로 얼굴을 보고 지낸 것이 10년도 더 된 일이다보니 남들이 보면 기겁할만한 농담이나 장난도 별 것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는 신뢰가 생겼다.

[노아 쳉]

금세 뻥질거리도 이상하게 귀찮거나 밉지 않은 막내. 윗사람이 불편하지 않은건지 쉽게 다가와 말을 걸고 장난을 쳐대는 것이 어쩌면 성격 좋은 강아지를 닮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귀여운건가. 일을 시키면 그 나름의 이유로 뻥질거리고 귀엽다 해주면 뻥뻥하게 더 귀여워해달라며 받아쳐 언제나 골을 땡하게 울려준다. 입단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각이 잘 선 다른 막내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타입이긴 하겠다. 가끔 아슬아슬한 농담도 던져 정말 판이라도 깔아줘야하나 고민하고 있다. 진짜 손을 대면 양심이 아프려나 싶지만 어차피 이런 곳에 발을 담근 이상 남은 양심을 헤아리는 것은 흐르는 물을 잡는 것보다도 더 의미없는 짓이 아닌가.